

# EU, 와인무역 동향

김 정 섭\*

EU는 전 세계 와인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EU의 와인 주조용 포도 재배 면적은 전 세계 재배 면적의 45%를, 와인 생산량은 65%를, 와인 소비량은 57%를, 수출액은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세계 무역 자유화 추세 속에서 EU의 와인 산업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EU의 와인 무역 현황을 간단히 소개한다.

## 1. 유럽 와인시장 구조

유럽의 와인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EU는 전 세계 와인 시장을 주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 (1) 생산 : 유럽의 와인 주조용 포도 재배 면적은 전 세계 재배 면적의 40%에 달하며, 와인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60%에 이른다.
- (2) 소비 : EU의 와인 소비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60%에 달한다.
- (3) 무역 : EU는 세계 최상위의 와인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 1.1. 생산

와인을 생산하는 EU 회원국 대부분에서 와인이 차지하는 농업생산액 비중은 중요하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농업생산액 중 와인 생산이 차지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하는 비중은 10.3%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9.3%), 오스트리아(9%), 포르투갈(8.3%), 스페인(3.3%)의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와인 주조용 포도 재배는 특히 지역 수준에서 농업 및 경제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종 농업생산액 중 와인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 달하는 지역들이 많다. 랑게독-후실롱(Languedoc-Roussillon) 지방에서는 그 비중이 45%나 된다.

유럽의 와인 주조용 포도 재배 현황은 회원국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와인 주조용 포도 재배 농가들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포도 재배 면적의 규모나 생산되는 와인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와인 생산지역마다 고유한 양조 과정과 토양의 특성이 유럽 와인 산업의 지역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와인 주조용 포도 재배지는 와인 생산 지역 경관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그리고 환경적 관점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 대안도 없는 지역에서, 와인 주조용 포도 재배는 지역 인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와인 주조용 포도 재배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적절한 기계화, 작물보호를 위한 투입재의 집약적 사용, 비료의 과다 사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

1975~76년 사이에 실시된 양조용 포도나무 신규 식재 금지 조치와 폐원시 보상금 도입 이후, 재배 면적은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는 그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1976년에서 1996년 사이에 EU의 와인 주조용 포도 재배 면적은 450만 ha에서 340만 ha로까지 줄었다. 연 평균 감소율은 1.4%로, 매년 거의 5만 6,000ha씩 감소한 셈이다. 최근에는 그 감소 속도가 완화되었다. 이는 특히 1999년의 유럽공동시장 개혁 정책이 도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개혁 조치로 인해 2001년부터 2003년 동안 5만 1,000 ha의 신규 식재가 가능했다. 그리고 2004년의 EU 확대에 의해 와인 주조용

포도 재배 면적은 10만 5,000ha 정도 증가했다. 현재 EU 25개 회원국의 와인 주조용 포도 재배 면적 합계는 약 340만 ha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EU의 와인 주조용 포도나무는 그 수령이 오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갱신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EU의 와인 생산량은 1억 5,100만 hl에서 1억 8,300만 hl 사이의 규모를 유지했다. 와인 생산량은 그 생산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재배 방법에 따라서 매년 큰 폭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한 연간 생산량 변화와는 별개로, 최근 20년 간 유럽에서는 와인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80년대 전반기에는 약 1억 9,000만 hl였던 것이 1990년대 들어서는 연 평균 1억 6,000만 hl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로는 와인 주조용 포도 생산량은 심하게 불규칙했지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5년 간의 와인 생산량은 EU 신규 회원국 가입에 힘입어(이 국가들이 생산하는 와인은 연간 700만 hl 정도로 EU 25개 회원국 생산량 합계의 4%에 달한다) 상당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1억 7,800만 hl 정도이다.

## 1.2. 소비

2002년 현재 EU 15개 회원국의 와인 소비량은 거의 1억 2,700만 hl에 달했다. 이를 1인당 연간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34ℓ이다. EU 확대 이후, 유럽연합의 와인 소비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규 회원국들의 총 와인 소비량은 거의 600만 hl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연간 소비량은 EU 전체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다(약 9ℓ). 따라서 EU 확대 이후 1인당 연간 와인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어 30ℓ 미만이 되었다.

EU의 평균 와인 소비량만으로는 회원국들 간에 있는 상당한 정도의 소비량 차이를 알기가 어렵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주요 와인 생산국들의 경우 1인당 연간 와인 소비량이 EU 평균보다 매우 높거나 거의 두 배에 달한다(프랑스 57ℓ, 이탈리아 48ℓ).

지난 20년 간 와인 소비량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반적인 감소 경향은 회원국이나 와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 소비 감소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1인당 소비량이 아주 많은 와인 생산 국가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 국가들에서의 와인 소비량은 20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에 와인을 생산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소비량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2) 와인 소비량 감소는 테이블 와인(table wine)의 경우에 심했으며, 반면에 고급 와인(quality wine)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자 행동, 와인이 음식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의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동향이다.

알콜이 함유된 모든 종류의 음료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단일 시장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인에 대한 과세는 EU 회원국마다 매우 다르다. 회원국들의 세법을 조율하기 위해 EU는 여러 개의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한 관세율은 회원국에 따라서는 0~273%까지 차이가 난다. 와인 범주에 드는 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2~25%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있다.

### 1.3. 무역

EU는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연평균 1,250만 hl의 와인을 수출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45억 유로에 달한다. 이는 EU가 세계의 주도적인 와인 수출국으로서 그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음을 뜻한다. EU의 와인 수출 주요 대상국은 미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이다. 대부분의 와인이 수출환급금 없이 수출되고 있다(2003년 한 해 동안 82% 이상).

2004년 기준으로, EU 회원국들 중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EU 전체 수출량의 35%), 프랑스(30%), 스페인(21%)이었다. 수출하는 와인의 단가 차이로 인해, 프랑스는 수출액으로 보면 총 수출액의 51% 정도를 차지하여 이탈리아

(30%)나 스페인(10%)에 비해 큰 폭의 판매 수익을 얻고 있다.

EU는 또한 주요 와인 수입국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연 평균 와인 수입량은 900만 hl이었다.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칠레,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것들이다. 수입량은 10년 전에 비해 거의 열 배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유럽 북부 국가들의 소비량 증가가 한 몫 했다(특히, 영국의 경우 EU의 와인 수입량 중 45%를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EU에 와인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와 무역 정책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와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자유화된 탓도 있다.

EU-15개 회원국들에서의 와인 수급 균형 상태는 일정한 주기를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1993년까지의 장기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구조적 잉여
- (2) 1994~96년 : 수량 감소 이후의 일시적인 상황 호전과 그로 인한 1980년대 이후 누적된 와인 재고량 감소
- (3) 1996년 이후 : 1999년과 2000년 두 해에 걸친 양조용 포도 대규모 풍작 이후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심화. 2002년과 2003년의 생산량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인 재고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 2004년의 기록적인 수확량 증대와 수입량 증가로 인해, 현재와 같은 유럽의 와인 시장 상황은 가까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 2. EU의 와인 무역

### 2.1. EU 역내 무역

EU 역내 무역에서 와인 순수출국들의 수출량 순위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그리스의 순이다. 한편, 순수입국들 중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앞의 순위는 다소 달라진다. 와인 순수출국 순위는 금액 기준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순수입국 중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크다. 이러한 국가 분류는 EU 역내 수출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역내 무역량은 양이나 금액 두 측면에서 모두 역외 무역량 보다 크다. 다음 <표 1>과 <표 2>는 EU 역내 와인 무역량과 역외 와인 무역량을 비교한 것이다.

EU의 역내 수출량을 역외 수출량과 비교하면, 물량 기준으로는 3배 가까이 되며 금액 기준으로는 1.5배에 달한다. 와인 무역은 최근 10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수입은 물량 기준으로는 30%, 금액 기준으로는 60% 증가했다.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는 25%, 금액 기준으로는 50% 증가했다. 이 같은 와인 무역 규모 증대는 주로 역외 무역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EU 역내 와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한 셈이다. 특히 수입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하다.

수출 관점에서 볼 때, 역내 무역과 역외 무역 모두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주도적인 국가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수출 물량 측면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물량 측면에서 역외 수출과 역내 및 역외 수출 합계 두 부분에서 프랑스보다도 더 큰 와인 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2004년 EU의 와인 역내 수입량과 역외 수입량 비교

수입량 기준 (EU 15개 회원국, 3대 주요 수입국)					금액 기준	
	EU-15	덴마크	영국	프랑스		
역내 수입량 (1,000hℓ)	35,228	11,229	6,699	4,968	역내 수입량 (1,000hℓ)	6,638,010
전체 수입량 중 역내 수입량의 비중(%)	75	83	55	89	전체 수입량 중 역내 수입량의 비중(%)	73
EU-15개국 역내 수입량 중 차지 하는 비중(%)		32	19	14	역외 수입량 (1,000hℓ)	2,509,367
역외 수입량 (1,000hℓ)	11,653	2,249	5,398	642	역내/역외 수입량	2.6
EU-15개국 역외 수입량 중 차지 하는 비중		19	46	6		
역내/역외 수입량	3.0	5.0	1.2	4.7		
합계(1,000hℓ)	46,881	13,478	12,097	5,610	합계(1,000hℓ)	9,147,377
EU-15개국 합계 중 비중		29	26	12		

자료: COMEXT

수입 관점에서 볼 때, 역내 무역과 역외 무역에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EU 역내 수입량의 65%가 세 국가(독일, 영국,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다. 역외 수입만을 놓고 본다면 영국으로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표 2 2004년 EU의 와인 역내 수출량과 역외 수출량 비교

수출량 기준 (EU 15개 회원국, 3대 주요 수출국)					금액 기준	
	EU-15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역내 수출량 (1,000hℓ)	37,510	10,192	9,686	11,554	역내 수출량 (1,000hℓ)	7,020,190
전체 수출량 중 역내 수출량의 비중(%)	73	71	67	80	전체 수출량 중 역내 수출량의 비중(%)	61
EU-15개국 역내 수출량 중 차지 하는 비중(%)		27	26	31	역외 수출량 (1,000hℓ)	4,520,590
역외 수출량 (1,000hℓ)	13,816	4,088	4,699	2,927	역내/역외 수출량	1.6
EU-15개국 역외 수출량 중 차지 하는 비중		30	34	21		
역내/역외 수출량	2.7	2.5	2.1	3.9		
합계(1,000hℓ)	51,326	14,208	14,385	14,481	합계(1,000hℓ)	11,540,780
EU-15개국 합계 중 비중		28	28	28		

자료: COMEXT

## 2.2. EU의 와인 역외 수출

1996년 약 1,200만 hℓ 규모의 수출을 기록한 이후 약간의 정체기를 지나서, EU의 역외 와인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1,250만 hℓ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8%에 해당된다. 금액으로는 45억 Euro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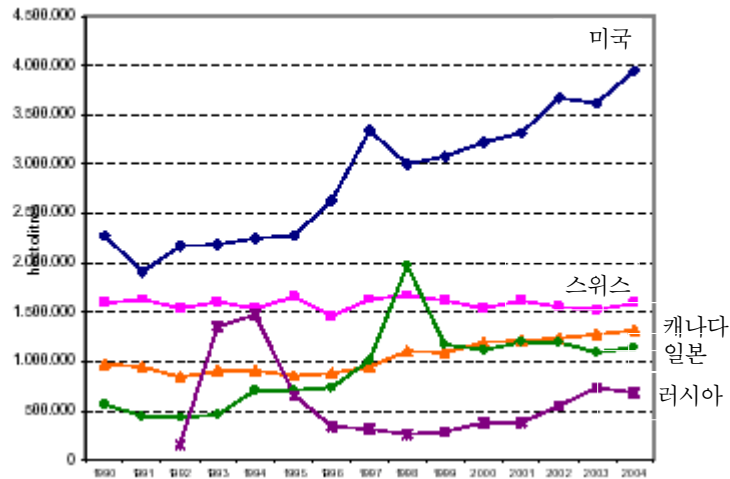
EU의 고급 와인 수출이 증가한 결과, 수출액 증가율은 1996년 이후로 매년 7% 이상을 기록했다.

2000년에서 2003년 동안, 전체 역외 수출량 중 4% 이상을 수입한 국가를 EU의 주요 와인 수출대상 국가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5개 국가가 해당되는데(미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 러시아), 이 국가들은 EU의 와인 수출량 중 65%를 수입했다.

미국이 가장 큰 규모의 수출 대상국으로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연 평균 350만 hl를 수입했다. 이는 EU의 와인 수출량 중 30%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1990년대를 지나는 동안 EU의 와인 수출 중 미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병포도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 외 4개 국가로의 와인 수출은 최근 2~3년 사이에 약간 증가했다. 결국, 북아메리카 시장을 제외한다면, 유럽의 와인 수출은 매우 다양한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셈이다. EU 역외의 와인 생산국들로의 수출은 정체되어 있거나(2003년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의 수출은 8만 3,000hl, 뉴질랜드에의 수출은 3만 1,000hl), 급감했다(칠레로의 수출은 1,300hl). EU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은 스위스이다. 스위스로의 수출 규모는 연 평균 160만 hl로서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120만 hl, 10%), 일본(110만 hl, 9%), 러시아(50만 hl, 4%)의 순이다.

1993년에서 1998년 사이에, 일본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캐나다로의 수출 규모를 앞질렀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지만, 이러한 수출 규모 급증은 밀레니엄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수출은 급감했다. 2003년 동아시아 국가들(홍콩, 대만, 한국, 중국)에의 EU 와인 수출 규모는 26만 hl이었는데, 이는 1997년 수준의 1/4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러시아로의 수출은 1994년 한 해 동안 급증하여 140만 hl에 달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림 1 주요 수출대상국 별 EU 와인 수출 규모 변화



### 2.3. EU의 와인 역외 수입

EU 역외 국가들로부터의 와인 수입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다. 1993년에는 수입량이 270만 hl였던 것이 2004년에는 1,160만 hl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출량이 수입량보다는 더 많다(EU의 2004년 와인 수출량은 1,380만 hl). 와인 수입 규모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기준으로 EU는 9개 국가들로부터 전체 와인 수입량의 90% 이상을 들여오고 있다. EU가 와인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26%), 칠레(20%),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각각 18%) 등이다. EU에 와인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집단은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등으로 이루어진 주요 공급 국가이다. 이 국가들의 와인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다른 집단은 전통적인 수출국가들로 최근 들어서는 그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EU가 와인을 수입하는 주요 4개국들은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최근 10년 간 거의 10배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 상승을 기록했다. EU에 대한 이 국가들의 와인 수출규모는 1993년에 85만 hl 이던 것이, 2003년에는 800만 hl 로까지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950만 hl 에 달했다.

미국은 EU가 상대하는 주요 와인 수출국가이자 수입국가라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EU와 미국의 와인 무역량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량이 수입량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 대한 EU의 와인 수출량은 1993년에는 수입량에 비해 12배 이상의 규모였으나, 2004년에는 겨우 두 배 정도인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와 칠레가 미국 시장에서 그 입지를 다지는 동안, EU는 미국 시장을 상실하고 있다.

수출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앞서 언급한 4대 주요 국가들이 EU에 수출하는 와인은 EU의 전체 와인 수입 중 86%를 점한다. 오스트레일리아가 8억 9,400만 유로 규모의 와인을 수출함으로써 EU에게는 가장 큰 와인 수입국가이다. 그 뒤를 남아프리카 공화국(4억 3,600만 유로)과 미국(4억 1,600만 유로)이 잇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칠레가 4억 900만 유로 규모의 와인을 EU에 수출하고 있다.

### 3. 전망

EU의 와인 산업 부문 현황과 전망은 1990년대 말의 그것과는 매우 달라졌다. 당시에는 누적되었던 대규모의 와인 잉여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다. 그런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는 공급 증가, EU 역내 수요 감소, 세계 와인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의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EU 산 와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EU 내에서 커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에는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관리, 와인 주조용 포도 나무의 갱신 속도 가속화, 생산 구조의 합리화, 와인 산업의 전 부문(바틀링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에 걸친 현대화, 생산자와 판촉의 조직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유럽연합 집행위원회)